못자리

12월

제 1719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막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알아볼 성지는 '청주교구'의 성지들이에요.

'배티 성지'- 배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우촌은 열 군데가 넘었으며, 55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
또한 최양업 신부가 사목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연풍 순교 성지'- 황석두 루카 성인 고향이며, 그의 묘가 이곳에 모셔져 있음.
그밖에 13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

'멍에목 성지'- 멍에목이라는 이름은 포졸들이 죄수의 목에 멍에를 씌워 끌고 갔다는 것에서 유래.
그만큼 박해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을 지나며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하였음.

겨울 방학을 맞이하며 부모님과 함께 청주교구로 성지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12월 7일 대림 제2주일 〈마태 3,1-12〉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박석일 베드로

못자리 친구들 반가워요. 박석일 베드로 신부님이에요.
친구들은 성당 나오는 게 재밌나요?
아니면 재미없는데 억지로 나오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성당 나오는 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기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신부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기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에 나오고, 미사에 참석하는 일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가는 일이에요.
못자리 친구들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길 바래요.

우리들이야기 ★

★함창 성당 3학년 노윤서 소화 데레사

마태오 복음을 읽고 세례자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깨닫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용기있게 말했는데, 난 가끔씩 잘못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한처럼 솔직하게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창 성당 6학년 노윤지 미카엘라

오늘의 복음

12월 14일 대림 제3주일 〈마태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탑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아픈 사람(환자)을 찾아보세요.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 5 곳을 찾으세요.

오늘의 복음

12월 21일 대림 제4주일 〈마태 1,18-24〉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임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달의 생활성가

크리스마스 메들리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무척 기쁜 날이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크리스마스 성가 메들리를 준비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을 생각해보며
즐거운 성가를 들어보도록 해요.

@유튜브 - 한국가톨릭성가 korean catholic hymns

우리들이야기 ★

★서문동 성당 5학년 이지운 안젤라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들어나자,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드려라."라고 말하자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드렸어요.

이렇게 요셉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같이 좋은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서문동 성당 5학년 이지운 안젤라

오늘의 복음

12월 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마태 2,13-15.19-23〉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 도시

예리코(Jericho[제리코], أريحا[아리하])

-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도시,현지 아랍인들은 [아리하]라고 부르는 곳.
-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곳. 이 때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숫양 뿔 나팔을 불면서 성 주변을 돌고 백성들이 소리지르자 성벽이 무너짐. [여호 6, 1-27]
- 예수님께서 눈먼 이를 고쳐주신 곳. [루카 18, 35-43]

퍼즐 가로세로

크	별	영	그	인	스	선	바	도	세
탄	리	바	예	리	우	바	맹	례	구
생	빛	스	권	사	포	리	미	유	말
미	고	을	마	랑	의	태	충	충	성
양	영	광	종	스	술	심	요	셉	애
개	목	소	마	유	화	항	마	생	방
과	리	자	리	회	개	께	굿	구	원
천	피	신	아	충	광	아	간	출	진
선	난	대	도	리	목	찬	극	대	노
의	링	문	성	렘	살	루	예	언	자

1. "○○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2〉
   -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2.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마태 3,7〉
   -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함.
3. 나에게 ○○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마태 11,6〉
   -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4.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하실 것이다. 〈마태 1,21〉
   -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5.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하여, 〈마태 2,13〉
   -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김.

주간 퀴즈

<1주간> : 대림 제2주일

1.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 나타나 선포한 말씀을 적어보세요.
   ( )

2. 복음 말씀에서 요한이 입은 옷과 먹은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① 낙타 털옷, 들꿀, 메뚜기
   ② 양 털옷, 아카시아꿀, 여치
   ③ 여우 털옷, 밤꿀, 귀뚜라미
   ④ 토끼 털옷, 들꿀, 메뚜기

<2주간> : 대림 제3주일

1.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세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 )을 듣는다. 나에게 ( )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를 고르세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 )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① 사도 요한　② 세례자 요한　③ 모세　④ 베드로

<3주간> : 대림 제4주일

1.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성경인물은 누구일까요?
   ① 마리아 막달레나 - 요셉
   ② 마리아 - 요한
   ③ 마리아 - 요셉
   ④ 임마누엘 - 요셉

2. 복음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찾아 적어보세요.
   ( )

<4주간>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헤로데를 피해 어디로 피신하라고 하나요?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 )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① 유다 ② 갈릴래아 ③ 이집트 ④ 가나안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 ) 땅으로 가거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 )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당첨자

10월 12일 정답자

모전동　　신윤성　　신동윤

10월 19일 정답자

송현동　　홍지승　　홍지수

10월 26일 정답자

남성동　　이하늘

11월 2일 정답자

남성동　　김민우　　장준우

11월 9일 정답자

목성동　　이혜원　　이강민

알림판

못자리 친구들!

벌써 2025년 12월이 되었어요. 올 한해를 돌아보며, 특별히 2025년 희년에 받은 은총을 되새겨 보아요. 매월 못자리 앞표지에 실렸던 성지 사진들 중에 친구들은 어떤 '성지'를 다녀왔었나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성경도시'는 어느 곳인가요? 마음에 와닿는 '생활성가'는 있었나요? '우리들의 이야기'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나요?

친구들이 이 '못자리'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럼 2026년 1월호에서 새롭게 만나요~!

◆ 1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1월　4일 : 용상동 성당
- 1월 11일 : 모전동 성당

(※ 원고는 12월 2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